

무상복지 자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일시 2014년 11월 28일(금) 오전 14:00 ~ 16:00

장소 전경련회관 타워 3층 파인룸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 일시: 2014년 11월 28일(금) 14:00~16:00
- 장소: 전경련회관 타워 3층 파인룸

❖ PROGRAM ❖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20	개회사 권태신(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환영사 나성린(새누리당 국회의원)
14:20~14:50	주제발표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14:50~16:00	종합토론 사회: 곽태원(서강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김승래(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학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성명재(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영환(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가나다 順〉
16:00	폐 회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illegible]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무상복지 자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2014.11.28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목 차

- I** 무상복지 비용과 문제점 [1]
- II** 법인세 동향 및 국제비교 [5]
- III** 법인세를 인상의 경제적 효과 [13]
- IV** 결론 및 정책제언 [28]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

무상복지 비용과 문제점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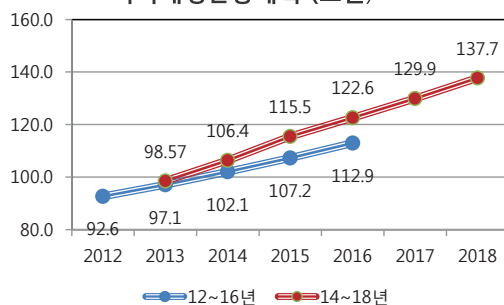
복지비용과 문제점

▶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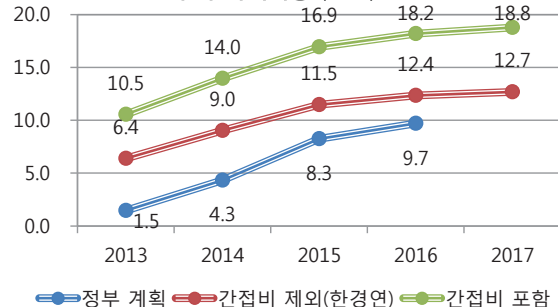
● 박근혜정부의 복지비용 연평균 20.7~31.4조원 소요

- 정부안: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2015년에 9.7조원 추가 증액
- 한경연 추정: 2015년에 11.5~16.9조원, 2017년 12.7~18.8조원 소요
 - 지방정부 부담을 포함할 경우 비용 2배로 증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조원)



추가 복지비용 (조원)



● 3대 무상복지 향후 3년간 약 10조원 소요

- 무상급식(점진적 확대 2017년 완료 가정) 총 3조 6천억원
-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원액 상승, 2014년에 비해 '15~'17년 약 1조 9천억원 추가 소요
- 고교무상교육, '15년부터 점진적 시행시 2017년까지 4조 1천억원 소요

● 향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 확대, 학교경비 지원 등 복지비용 상승

2

복지비용과 문제점

▶ 무상복지 문제점

● 무상복지는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으로 혜택이 귀착

- 소득하위 20%대비 소득상위 20% 수혜비중(복지패널)
 - 무상급식 2.38배, 고교무상교육 2.73배, 무상보육 4.38배

● 무상복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는 풍선효과 유발

- 서울시의 경우,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지원확대로 저소득층지원 '12년 1.6천억원에서 '14년에 1.3천억으로 축소

서울시 교육청 본예산(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무상급식	138,302	228,267	263,038
누리과정	206,707	231,999	547,336
저소득층 지원	169,675	150,001	134,439

● 무상복지는 과잉수요를 유발하고 복지의 질적 저하를 초래

- 재원이 일반조세로 조달되기 때문에 과잉수요 유발
- 재원부족 → 급식단가 인하 → 급식의 질 저하
- 무상교육은 교육환경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 초래

3

복지비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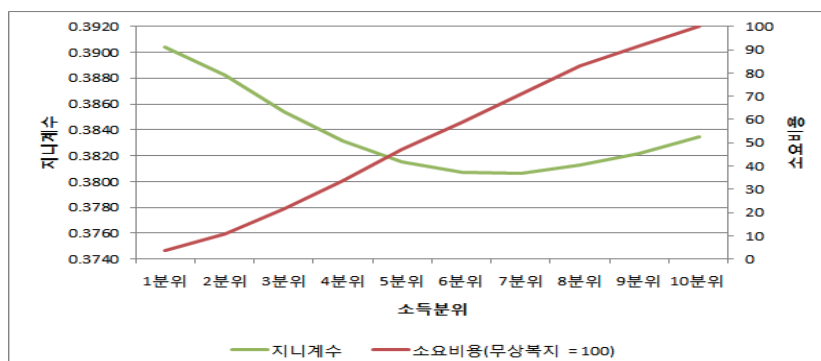
▶ 무상복지 개선방향

● 증세에 앞서 무상복지 개선이 선행

- 조경엽·유진성(2013), 무상복지 소득재분효과 낮고 성장과 고용에 부정
 - 소득재분배 효과(천억원당): 무상교육 0.0006%p, 무상보육 0.0105%p 제고
 - GDP 효과(천억원당): 무상교육 0.014%p, 무상보육 0.0095%p 감소
 - 고용효과(천억원당): 무상교육 0.014%p, 무상보육 0.0101%p 감소

● 선별적 복지제도로 전환

- 선별적 복지 대상 기준: 소득하위 4분위 ~7분위(조경엽·유진성,2012)
 - 소득하위 4분위 이하 전환시, 현재의 복지비용 30~40%로 무상복지보다 낮은 지니계수 달성
 - 수혜대상, 소득상위 70%를 넘으면서 지니계수 상승



4

Ⅱ

법인세 동향 및 국제비교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5

1. 2008년 감세이후 법인세 현황

▶ 감세효과 상쇄되고 세부담 증가

● '08년 감세이후 대기업의 세부담 지속적으로 증가

- '08년 세율 2%p 인하, 대기업 세부담 23.7조원(5년간) 감소
- 최저한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 축소, 대기업 세부담 34.6조원(5년간) 증가
- 지난 5년간 대기업의 순 세부담은 10.9조원 증가
- 기업소득환류세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 예정되어 세부담 지속 증가

'08~'13년간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조원)

구 분		'08년 개정	'09년 개정	'10년 개정	'11년 개정	'12년 개정	'13년 개정	합계
세수효과		△88.7	+36.1	+4.6	+5.7	+7.7	+9.2	△25.4
귀 착 효 과	중산서민층	△21.2	+2.1	+1.3	△2.7	△1.7	△8.4	△30.6
	중소기업	△15.1	+4.5	+0.2	△2.3	△0.1	+0.9	△11.9
	대기업	△23.7	+14.9	+1.9	+5.1	+5.5	+7.2	+10.9
	고소득층	△28.3	+14.6	+0.5	+5.6	+2.8	+9.0	+4.2
	기타	△0.4	-	+0.7	-	+1.2	+0.5	+2.0

자료: 기재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인용

주: 2008년 이후 세법개정 세수효과, 2014년 10월(5년간 누적기준)

1. 2008년 감세이후 법인세 현황

▶ 감세효과 이미 상쇄

● 법인세의 실질 세부담 증가 요인

대기업 관련 주요 세제 비교('09년 vs '15년)

주요세제		'09년	'15년	중세효과 추정
법인세율		22%	22%	-
최저한세율		14%	17%	1%p 인상시 연 2,970억원 (조특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13.11)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0%	0~1%(기본공제)	1%p 인하시 연 3,000억원 (기재부,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R&D 세제지원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3~6% → 3~4%)		n.a.
		'대기업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최저한세' 제외 → 적용		n.a.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 공제허용 → 배제		연 1,250억원 (기재부,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공제산식 조정		연 3,483억원 (정부제출, 조특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12.12)
	R&D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폐지	연 943억원 (기재부,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10%	3%	연 876억원 (정부제출, 조특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13.11)
기업소득환류세제		-	신설(10%)	연 8,613억원 (기재부,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① 일괄한도 계산방식 폐지 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연 4,100억원 (기재부, 2014년 국감제출 자료)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2014.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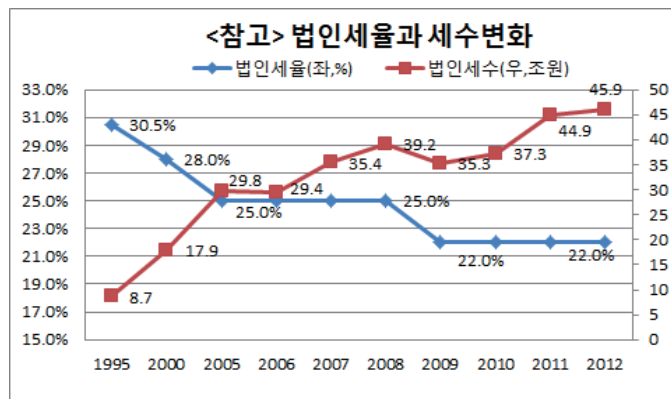
7

1. 2008년 감세이후 법인세 현황

▶ 법인세수 추이

● 법인세율 인하, 세수입 증가 추세

-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음(-)의 상관관계, 경제성장과 양(+)의 상관관계
 - 외환위기 이후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입 증가
 - '09년 세수감소는 세율인하보다는 경기침체가 주 원인
 - '10년 감면을 하락과 경기회복으로 세수입 증가



법인세수입과 감면을 추이 (단위: 억원, %)

법인세	수입	감면	감면율
2006	293,622	60,810	17.2
2007	354,173	61,925	14.9
2008	391,545	70,181	15.2
2009	352,514	71,767	16.9
2010	372,682	70,491	15.9
2011	448,728	91,290	16.9
2012	459,318	84,862	15.6
2013	438,548	82,237	15.8
2014	460,181	74,906	14.0
2015	460,466	70,087	13.2

주1) 2006~2013년 실적, 2014년 잠정, 2015년 전망

2) 감면율(%) = [감면/(감면+수입)]×10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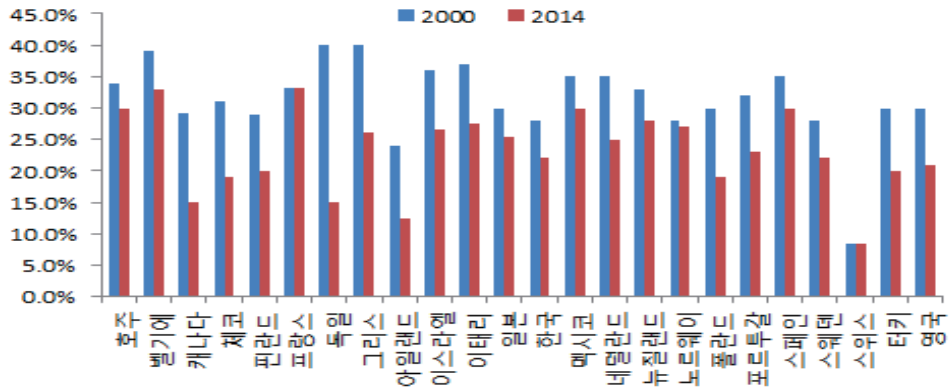
2. 국제비교

▶ 법인세율 국제 동향

● 자본유치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간 조세경쟁 심화

- 지난 30년간 OECD 평균 법인세율 지속적 하락
 - 43.4%('85년) → 34.0%('95년) → 26.2%('05년) → 23.4%('14년)
- 2000년대 이후 급속한 글로벌화 진행됨에 따라 자본유치 경쟁 심화
 - 프랑스(33.3% 유지)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최고세율 인하

OECD 주요국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9

2. 국제비교

▶ 법인세율 국제 동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 인하 추세 확산

- OECD 평균법인세율 23.64%('09년) → 23.04%('14년) 0.6%p 인하
-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을 제외하고 법인세율을 유지(15개국)하거나 인하(12개국)

인하			유지			인상		
국가	2009	2014	국가	2009	2014	국가	2009	2014
포르투갈	25.0	23.0	호주	30.0	30.0	칠레	17.0	20.0
캐나다	19.0	15.0	오스트리아	25.0	25.0	그리스	25.0	26.0
체코	20.0	19.0	에스토니아	21.0	21.0	아이슬란드	15.0	20.0
덴마크	25.0	24.5	독일	15.0	15.0	이스라엘	26.0	26.5
핀란드	26.0	20.0	아일랜드	12.5	12.5	멕시코	28.0	30.0
일본	30.0	25.5	이태리	27.5	27.5	슬로바키아	19.0	22.0
네덜란드	25.5	25.0	한국	22.0	22.0	헝가리	16.0	19.0
뉴질랜드	30.0	28.0	폴란드	19.0	19.0			
노르웨이	28.0	27.0	스페인	30.0	30.0			
슬로베니아	21.0	17.0	스위스	8.5	8.5			
스웨덴	26.3	22.0	터키	20.0	20.0			
영국	28.0	21.0	미국	35.0	35.0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10

2. 국제비교

▶ 법인세 부담 비중

● 아시아 경쟁국 동향

- 중국: 33%('07년 이전) → 25%('08년 이후)
- 대만: 25%('07년) → 17%('10년 이후)
- 싱가포르: 20%('07년) → 18%('08년) → 17%('10년 이후)
- 홍콩: 16.5%('08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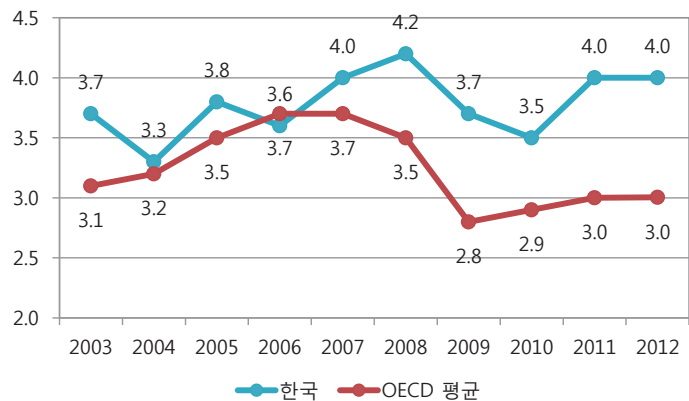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대비 법인세 비중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

- OECD 평균: 2.8%('09년) → 3.0%('12년)
- 한국: 3.5%('10년) → 4.0%('12년)

GDP 대비 법인세수비중 (%)

	2003	2007	2009	2012
캐나다	3.2	3.4	3.3	2.9
프랑스	2.5	3.0	1.5	2.5
독일	1.3	2.3	1.4	1.8
일본	3.3	4.8	2.6	3.4
한국	3.7	4.0	3.7	4.0
영국	2.7	3.4	2.8	2.9
미국	2.0	2.9	1.7	2.6
OECD평균	3.1	3.7	2.8	3.0

GDP 대비 법인세수비중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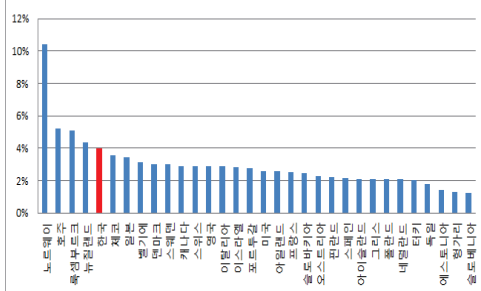
2. 국제비교

▶ 법인세부담 비중 OECD 국가중 최상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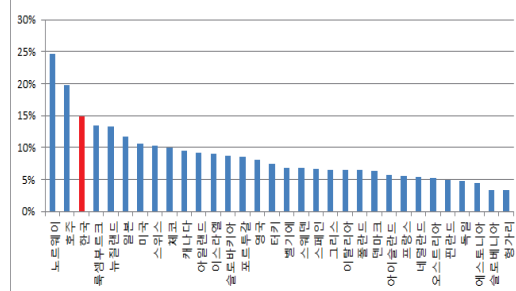
● GDP대비 법인세 비중(4.0%) OECD 국가 중 5위

- 총조세대비 법인세 비중은 3위(14.9%)
- 법인세부담 비중 증가추세 지속될 전망

GDP대비 법인세수비중(%)



총세수대비 법인세수비중(%)



●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부담 완화할 시점

- 경기침체와 세부담증가로 기업실적 크게 악화
 - 매출액 증가율, '09년 상반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0.7%)
- 법인세율 인상 → 자본유출 가속화 & 산업경쟁력 약화 → 세입기반 약화

12

Ⅲ

법인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3

1. 분석방법

▶ 분석모형

● 분석모형 특징

- 조경엽 외 2(2014) 모형 활용
 - 분석대상 산업: 산업연관표 대분류 기준의 27개 부문
 - 분석대상소비재화: 음식료, 광열수도, 담배, 주류, 교통 등 12개 재화
 - 10분위 소득계층
- 기업세제 분석에 적합하도록 산업연관표의 영업잉여를 세분화
 - 산업자본: 배당소득, 사업소득, 설비 및 건물 잉여, 토지잉여, 기타 무형자본소득
- 분석대상 조세
 - 법인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재산세(토지, 부동산), 종부세(산업 & 가계), 임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담배세, 자동차세, 교육세, 관세 등 16개 세목 반영
- 분석대상 기간: 2012년 ~ 2060년
 - Ramsey 성장모형을 다부분으로 확대한 완전 동태적 CGE 모형
 - 자본 축적이 내생적으로 결정: 법인세의 동학적 효과 반영

● 분석내용

- 분석 시나리오: 법인세 최고세율 2%p 인상
- 분석내용: 세수효과, 법인세 귀착, 소득재분배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1. 분석방법

▶ 주요 입력데이터: 산업별 실효세율

● 산업별 법인세 유효세율과 세부담 분포

- 기업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잉여를 세분화
 - 기업경영분석, 기업총조사, 기존 연구 활용
 - 법인세 과세대상 자본: 배당, 사내유보 세분(시설 & 건물, 토지, 기타 자본)
 - 법인세 비과세 대상 자본: 사업소득
- 법인세의 실효세율
 - 산업평균 실효세율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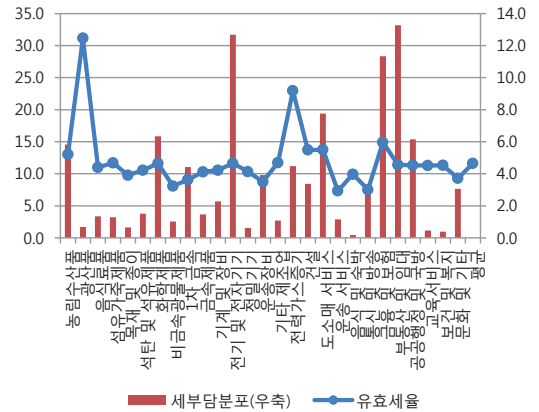
주요 산업의 영업잉여 분해 (조원, %)

	배당 소득	사내유보			사업소득	세수	유효세율 (%)
		시설&건물 잉여	토지 잉여	기타자본 잉여			
농림수산	0.0	1.1	0.1	21.3	0.0	2.7	13.0
광산업	0.0	0.8	0.0	0.2	0.1	0.3	31.1
화학제품	2.6	16.4	0.7	7.7	1.8	2.9	11.6
전기전자	3.0	23.5	0.5	27.9	2.2	5.8	11.6
전력	0.0	8.2	0.5	1.2	0.0	2.1	22.9
운송장비	1.9	13.1	0.9	6.6	0.6	1.8	8.7
금융보험	8.7	7.5	0.2	21.9	0.2	5.2	14.9
부동산	0.0	24.5	1.2	32.9	34.6	6.1	11.4
합계	34.0	185.1	9.6	205.2	162.5	45.9	11.6

주 1: 배당소득은 산업별 배당을 적용추정(기업경영분석), 산업별 유형자산(기업경영분석)에 대출금리와 감가상각율(법정 사용연수) 적용하여 자산유형별 잉여추정,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체의 영업잉여 비중적용(기업총조사) ..

주 2: 김학수(2009)의 산업별유효세율을 적용 후 추정된 법인세수입과 2012년 법인세수입(지방분포합)과 일치하도록 세부담 비중에 따라 자역을 배분 후 유효세율 재추정.

산업별 실효세율과 세부담분포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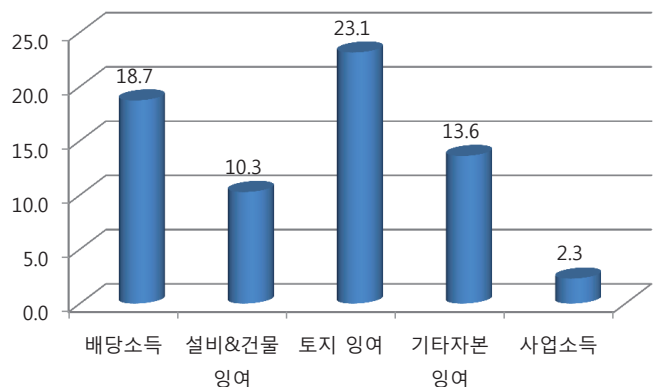
1. 분석방법

▶ 주요 입력데이터: 자본유형별 실효세율

● 자본간 세부담 격차 자본배분 왜곡의 원인

- 배당의 실효세율 18.7%
 - 배당은 법인세, 소득세(분리과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담
- 사내유보 중 자본별 세부담 큰 격차
 - 법인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납부하는 토지의 실효세율 23.1%
 - 설비&건물은 임투세 공제로 실효세율 10.3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사업소득은 소득세만 납부하여 세율 2.3%로 가장 낮음

자본유형별 실효세율 (%)



자본유형별 세목별 실효세율 (%)

	법인세	임투세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합계
배당소득	12.4	x	5.1	1.2	x	x	x	18.7
설비&건물	11.9	-4.3	x	x	1.7	1.1	x	10.3
토지	11.9	x	x	x	1.7	1.1	8.5	23.1
기타자본	12.0	x	x	x	1.7	x	x	13.6
사업소득	x	x	1.1	1.2	x	x	x	2.3

자료: 사업소득분포(가계동향조사), 사업소득세부담분포와 종합소득세부담 분포는 황상현 외 3(2013)

16

1. 분석방법

▶ 주요 입력데이터: 소득계층별 세부담분포

● 배당소득의 소득 및 세부담 분포와 실효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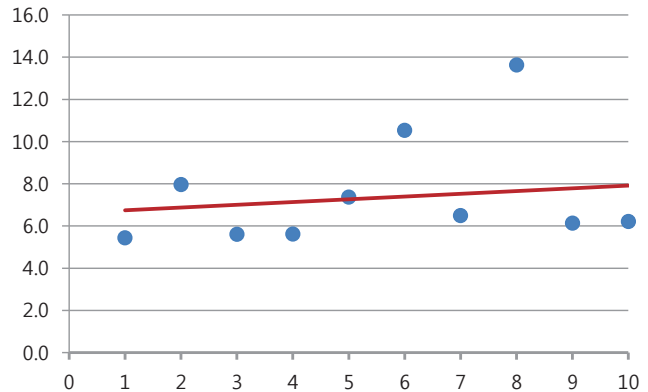
- 배당소득의 80% 이상이 상위 10분위와 9분위 소득계층에 분포
 - 소득 8분위 계층의 배당은 1.6%에 그쳐 3분위의 비중보다 낮음
- 종합소득세는 71.6%가 소득 상위 10분위와 9분위에 분포
 - 분리과세는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분포된다고 가정
 - 소득비중은 낮고 세부담비중이 높은 8분위, 6분위, 5분위의 실효세율 높음
 - 6분위와 8분위를 제외하면 배당소득세의 누진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

배당소득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분포		실효세율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율	종합소득세율	합계
W01	1.1	0.3	5.1	0.3	5.4
W02	0.5	1.2	5.1	2.8	8.0
W03	2.7	1.1	5.1	0.5	5.6
W04	4.7	1.9	5.1	0.5	5.6
W05	1.4	2.5	5.1	2.2	7.4
W06	1.0	4.2	5.1	5.4	10.5
W07	5.5	6.2	5.1	1.4	6.5
W08	1.6	11.0	5.1	8.5	13.6
W09	19.7	16.3	5.1	1.0	6.1
W10	61.8	55.3	5.1	1.1	6.2
합계	100.0	100.0	5.1	1.2	6.3

자료: 배당소득 분포(가계동향조사), 종합소득세부담 분포는 황상현 외 3(2013)
 주: 분리과세분은 배당소득분포와 동일하다고 가정

소득계층별 배당소득 실효세율 (%)



17

1. 분석방법

▶ 주요 입력데이터: 소득계층별 세부담분포

● 사업소득의 소득 및 세부담 분포와 실효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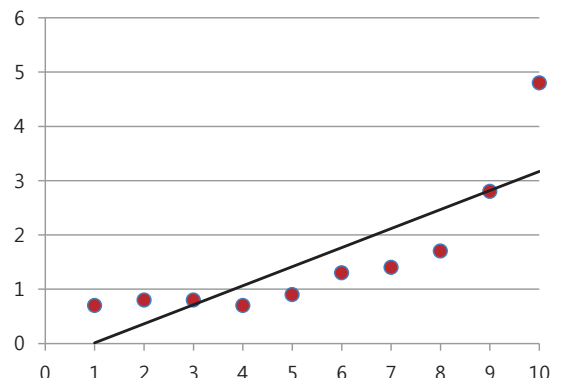
- 사업소득은 누진적으로 분포
 - 소득 10분위와 9분위가 사업소득의 39.2% 차지, 반면 하위 40%가 15.9% 차지
- 사업소득세는 황상현 외(2013) 추정된 소득분포에 따라 배분
 - 사업소득세의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누진적으로 분포
 - 사업소득세의 실효세율은 10분위 4.8%, 1분위가 0.7%로 누진성이 높음

사업소득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분포			실효세율		
	사업소득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합계
W01	0.7	0.1	0.3	0.2	0.5	0.7
W02	2.9	0.9	1.2	0.3	0.5	0.8
W03	5.1	2.8	1.1	0.6	0.2	0.8
W04	7.2	2.7	1.9	0.4	0.3	0.7
W05	9.4	5.1	2.5	0.6	0.3	0.9
W06	10.3	7.2	4.2	0.8	0.5	1.3
W07	12.5	9.4	6.2	0.8	0.6	1.4
W08	12.9	8.1	11	0.7	1	1.7
W09	16.6	24.3	16.3	1.6	1.2	2.8
W10	22.4	39.4	55.3	1.9	2.9	4.8
합계	100	100	100	1.1	1.2	2.3

자료: 사업소득분포(가계동향조사), 사업소득세부담분포와 종합소득세부담 분포는 황상현 외 3(2013)

사업소득 실효세율 누진도(%)



18

2. 법인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

▶ 법인세율 인상의 세수효과

- 법인세율 2%p 인상, 연평균 3.9조원 세수 증가

- 자본수요와 공급에 고정되었다고 가정
 - 세수입 연평균 4.6조원 증가, 3년간 누적세수입 13.8조원
- 법인세율 인상으로 자본수요공급 변화 반영
 - 세수입은 연가 3.9조원 증가
 - 자본소득감소로 연간 약 7천억원 상쇄되어, 3년간 누적 추가 세수입 11.7조원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법인세수입 변화 (조원, %)

	기준전망	자본소득 고정	자본소득 변화 반영	단순 증가액	자본소득변화 반영 후 증가액	간접효과 상쇄효과
	(A)	(B)	(C)	(D=B-A)	(E=C-A)	(E-D)
2015	52.5	57.1	56.4	4.55	3.86	-0.68
2016	53.2	57.8	57.1	4.61	3.89	-0.72
2017	54.0	58.6	57.9	4.67	3.94	-0.73
연평균	53.2	57.9	57.1	4.61	3.90	-0.71
합계	159.71	173.54	171.4	13.83	11.7	-2.13

19

2. 법인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

▶ 세수효과

- 법인세 인상되면 직·간접효과로 기타 세수입 감소

- 법인세 이외의 세수입은 연평균 4,977억원 감소
 - 근로소득세(원천) 435억원, 종합소득세 171억원, 부가가치세 2,465억원,
 - 소비세(개별소비세 교통환경세, 담배세, 주세) 1,002억원, 기타 904억원 감소
- 순증가는 연평균 3.4조원 증가하여 3년 누적 10.2조원 증가

법인세율 2%p 인상에 따른 세목별 세수변화 (10억원)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기타	순증가
2015	3865.0	-48.4	-17.9	-230.1	-93.6	-118.5	3356.5
2016	3890.5	-46.0	-18.4	-247.4	-100.5	-94.9	3383.2
2017	3940.6	-36.0	-15.1	-262.0	-106.4	-57.8	3463.3
연평균	3898.7	-43.5	-17.1	-246.5	-100.2	-90.4	3401.0
합계	11696.1	-130.4	-51.4	-739.5	-300.5	-271.3	10203.1

20

2. 법인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

▶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 법인세율 2%p 인상의 32.8%는 소비자, 67.2%는 생산자에게 귀착
 - 제품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 감소
 - 소비자 잉여 연평균 2.9조원, 생산자 잉여 5.9조원 감소, 총 잉여 8.8조원 감소

법인세율 2%p 인상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귀착 (10억원)

	소비부문	생산부문	합계
2015	-2682.5	-5552.1	-8234.6
2016	-2884.2	-6063.7	-8947.9
2017	-3055.1	-6026.4	-9081.4
연평균	-2873.9 (32.8)	-5880.7 (67.2)	-8754.7 (100.0)

주: ()은 비중을 의미하며, 생산부문은 부가가치기준으로 추정

21

2. 법인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

▶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 소비자 32.8%, 근로자 16.0%, 자본 51.2% 부담
 - 자본과 노동의 상대가격 변화로 노동과 자본잉여 축소
 - 자본의 잉여 연평균 4.5조원(51.2%), 노동잉여 1.4조원(16.0%) 감소

법인세율 2%p 인상의 소비자와 노동자, 자본가의 귀착 (10억원)

	소비부문	노동	자본	합계
2015	-2682.5	-1544.2	-4007.8	-8234.6
2016	-2884.2	-1473.4	-4590.4	-8947.9
2017	-3055.1	-1174.3	-4852.1	-9081.4
연평균	-2873.9 (32.8)	-1397.3 (16.0)	-4483.4 (51.2)	-8754.7 (100.0)

주: ()은 비중을 의미하며, 생산부문은 부가가치기준으로 추정

22

2. 법인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

▶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 자본유형별 귀착 상이

- 자본간 대체탄력성, 공급 및 수요탄력성이 자본유형별 잉여변화에 큰 영향
 - 배당잉여 3,972억원(4.5%), 설비&건물잉여 1,840억원(21%), 토지 717억원(0.8%), 기타무형자산잉여 2,703억원(30.9%) 감소
 -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소득의 잉여는 연평균 5,291억원(-6.0%) 증가

법인세율 2%p 인상의 소비자 및 노동자, 자본가의 귀착 (10억원)

	소비부문	노동	배당	사내유보			사업소득	합계
				설비&건물	토지	기타무형		
2015	-2682.5	-1544.2	-363.1	-1679.6	-64.9	-2468.2	568.0	-8234.6
2016	-2884.2	-1473.4	-404.1	-1867.8	-73.0	-2750.9	505.5	-8947.9
2017	-3055.1	-1174.3	-424.4	-1973.2	-77.2	-2891.1	513.8	-9081.4
연평균	-2873.9 (32.8)	-1397.3 (16.0)	-397.2 (4.5)	-1840.2 (21.0)	-71.7 (0.8)	-2703.4 (30.9)	529.1 (-6.0)	-8754.7 (100.0)

주: ()은 비중을 의미하며, 생산부문은 부가가치기준으로 추정

23

2. 법인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

▶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 소득계층별 노동잉여 변화

- 절대규모 면에서 고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큼
 - 10분위 노동잉여 연평균 3,367억원 감소, 1분위 노동잉여 89억원 감소
- 법인세 인상,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더 큰 폭으로 감소
 - 10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연평균 0.2%, 1분위 계층은 0.3% 감소

소득계층별 노동잉여 변화 (10억원)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합계
2015	-9.6	-33.9	-68.0	-99.3	-130.2	-157.3	-178.3	-222.6	-269.7	-375.3	-1544.2
2016	-9.3	-33.1	-63.2	-94.7	-123.5	-149.8	-169.4	-212.3	-259.0	-359.0	-1473.4
2017	-7.6	-27.3	-52.2	-77.4	-99.2	-122.1	-135.8	-170.7	-206.2	-275.9	-1174.3
연평균	-8.9	-31.4	-61.2	-90.4	-117.6	-143.0	-161.2	-201.9	-245.0	-336.7	-1397.3

소득계층별 노동잉여 변화(%)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합계
2015	-0.32	-0.30	-0.29	-0.29	-0.28	-0.28	-0.28	-0.27	-0.26	-0.23	-0.26
2016	-0.31	-0.29	-0.28	-0.28	-0.27	-0.27	-0.26	-0.25	-0.24	-0.21	-0.25
2017	-0.26	-0.24	-0.23	-0.23	-0.22	-0.22	-0.21	-0.20	-0.19	-0.16	-0.20
연평균	-0.30	-0.27	-0.26	-0.26	-0.26	-0.25	-0.25	-0.24	-0.23	-0.20	-0.23

24

2. 법인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

▶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 자본잉여도 저소득층의 자본소득 감소폭 클 전망
 - 10분위 계층의 자본잉여는 연평균 1.3조원 감소, 1분위 계층 잉여는 1,941억원 감소
 - 감소율은 1분위 계층 1%, 10분위 계층 0.8%로 저소득층이 클 전망
 -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누진적 분포가 원인
 - 사업소득으로 대체가 고소득층에서 크게 발생

소득계층별 자본잉여 변화 (10억원)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합계
2015	-176.6	-346.2	-331.7	-268.2	-273.3	-274.4	-270.4	-386.1	-486.6	-1194.4	-4007.8
2016	-197.6	-389.3	-375.8	-307.8	-316.3	-318.8	-317.0	-446.4	-562.8	-1358.7	-4590.4
2017	-208.2	-410.5	-396.7	-325.6	-334.9	-337.5	-336.3	-472.6	-595.7	-1434.1	-4852.1
연평균	-194.1	-382.0	-368.1	-300.5	-308.2	-310.2	-307.9	-435.0	-548.4	-1329.0	-4483.4

소득계층별 자본잉여 변화 (%)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합계
2015	-0.95	-0.87	-0.76	-0.63	-0.58	-0.56	-0.49	-0.58	-0.58	-0.73	-0.66
2016	-1.05	-0.96	-0.85	-0.71	-0.66	-0.64	-0.57	-0.66	-0.66	-0.82	-0.74
2017	-1.09	-1.00	-0.89	-0.74	-0.69	-0.67	-0.60	-0.69	-0.69	-0.86	-0.78
연평균	-1.03	-0.95	-0.83	-0.69	-0.64	-0.62	-0.55	-0.65	-0.64	-0.81	-0.73

25

2. 법인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

▶ 소득재분배 효과

- 법인세율 인상, 소득재분배에 영향 없음
 - 지니계수는 2015년에 0.321936에서 0.322000으로 0.02% 증가
 - 십분위배분율은 49.65에서 49.63으로 0.02%p 감소
 - 고소득층의 자본과 근로소득 감소폭이 절대액 측면에서 크지만,
 - 감소율 측면에서 저소득층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재분배는 미미하나마 악화될 전망

지니계수변화

	기준	2%p 인상	변화 (%)
2015	0.321936	0.322000	0.02
2016	0.322423	0.322507	0.03
2017	0.321926	0.322037	0.03

십분위배분율 변화 (%)

	기준	2%p 인상	변화 (%p)
2015	49.65	49.63	-0.02
2016	49.55	49.52	-0.03
2017	49.72	49.69	-0.03

26

2. 법인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

▶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 법인세 인상, 경제 효율성 저해

- 물가 연평균 0.12% 상승, GDP 0.33% 감소
- 투자 연평균 0.96% 감소, 소비 0.39% 감소, 정부지출 1.52% 증가

거시경제지표 변화 (%)

	CPI	GDP	소비	투자	정부지출
2015	0.09	-0.30	-0.38	-1.34	1.52
2016	0.12	-0.34	-0.40	-0.98	1.52
2017	0.15	-0.34	-0.41	-0.57	1.52
연평균	0.12	-0.33	-0.39	-0.96	1.52

27

IV

결론 및 정책제언

결론 및 정책제언

▶ 증세에 앞서 무상복지 재조정

- 무상복지 3년간 약 10조원 소요되나 소득재분배 효과 미약
 - 무상복지의 혜택이 중상위층에 집중되어 소득재분배 효과 미약
- 무상복지 확대는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의 지원을 축소시키는 풍선효과 유발
- 무상복지는 과잉수요 유발로 복지의 질적 저하 초래
 - 일반조세로 조달되기 때문에 과잉수요 발생
 - 급식의 질적 저하와 교육환경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 초래
- 선별적 복지제도로 전환 필요
 - 소득 4분위 ~7분위 이하 지원으로 전환
 - 4분위 이하로 지원할 경우, 현재의 30~40% 비용으로 보다 낮은 지니계수 달성
 - 7분위 이상 지원 시 지니계수 상승하여 소득재분배 악화

29

결론 및 정책제언

▶ 법인세부담 완화할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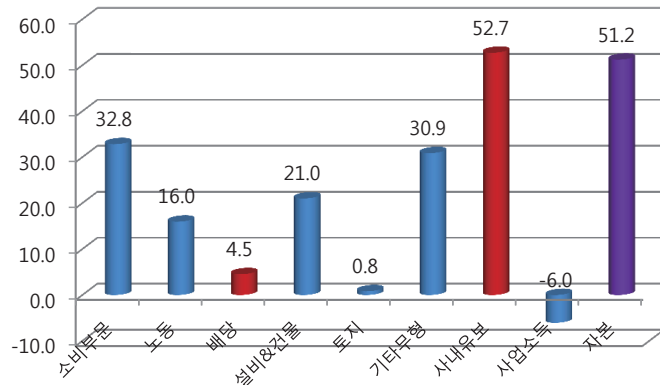
- '08년 감세효과 상쇄되고 오히려 부담 증가
 - 최저한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지난 5년간 대기업의 순부담 10.9조원 증가
- 우리나라의 법인세부담 비중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위치
 - GDP대비 법인세 비중(4.0%) 5위, 총조세대비 비중(14.9%) 2위
 -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은 국가간 조세경쟁에 낙후
 - 자본유출 가속화 & 산업경쟁력 약화, 경기침체 장기화, 세입기반 약화
-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 부담 완화
 - 경기침체와 세부담증가로 기업실적 크게 악화
 - 법인세부담 완화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
 - 법인세율 인하→투자확대→산업경쟁력 강화→성장률 제고→세입기반 강화

30

결론 및 정책제언

▶ 법인세율 인상, 소비자, 근로자로 전가

- 법인세 2%p 인상은 소비자에게 32.8%, 노동에 16.0%, 자본에 51.2% 전가
 -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연평균 약8.8조원 감소
 - 소비자 32.8%, 생산자 67.2% 부담
 - 생산부문의 노동과 자본의 잉여는 각각 연평균 1.4조원, 4.5조원 감소
 - 노동 16.0%, 자본 51.2% 부담
- 자본유형별 부담,
 - 배당 4.5% 증가
 - 사내유보 52.7%증가
 - 사업소득 6% 감소



31

결론 및 정책제언

▶ 법인세율 인상, 소득재분배 효과 없고 경제의 효율성만 악화

- 법인세율 2%p 인상시, 지니계수 미미하게 증가하여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없음
 -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절대액은 작지만 감소율이 커 지니계수 상승
- 법인세율 2%p인상시, 경제의 효율성 악화
 - 소비자물가 연평균 0.12%, GDP 0.33%, 투자 0.96% 감소

32

감사합니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